

PSY

24두를 위한 사양관리



박 봉 화
(봉화농장 대표)

1. 머리말

WTO가 출범하면서 안타깝고 걱정이 앞서지만 생존 투쟁을 결코 게을리 할 수가 없는게 현실이다.

전입화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도산되는 영세농의 맺히는 한(恨) 저편에 당연한 듯 인식되는 못 시선들이 무정하기도 하고 사료 영세율 적용 시행은 멀리 달아나기만 하는데 사료인상과 설상가상 세계화의 길은 험난하기만 한데 수입돈 방출이 자못 서럽기까지 하다.

그러나 어찌 현실을 방관만 해서 되겠는가?

살기위한 투쟁을 위해 축산인 모두 서로의 결집된 힘을 모으고 목소리를 높일 때는 높이고 안으로는 최대 경제가치 실현을 위해 더 한층 배가된 노력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 최고 우선적으로 달성해야 할 문제가 PSY 24두 실현화이다.

PSY, 즉 모든 1두당 연간 이유두수에 따라 농장의 성패가 좌우한다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외형에 근거한 수익성 산출을 예로 들어보자.

예) 모든 100두, 회전율 2.3회

전(가정)

- ① A농장 월 평균 이유두수 : 8두
- ② B농장 월 평균 이유두수 : 9두
- ③ C농장 월 평균 이유두수 : 10두 일때

$$*PSY = \text{월 평균 이유두수} \times \text{회전율}$$

$$* \text{년총 이유두수} = PSY \times \text{모든 상시 사육두수}$$

결국 95% 육성율에 1두당 산지가격 150,000원을 가정하면 각 농장의 판매가격차는 <표 1>과 같다.

즉, 다시 정리하면 월 평균 1두 증가당 년 32,800,000원 정도의 판매대금 차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역설하여 종합해 보면 PSY 향상책은 이유두수를 높이는 것과 회전율을 높이는 방안이 겸해져야 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2. 본론

가. 모든의 회전율 향상 방안

$$* \text{회전율} = 365 \text{일} \div (\text{임신기간} + \text{수유기간} + \text{재귀일})$$

$$= \frac{365 \text{일} - \text{비생산일수}}{\text{임신기간} + \text{수유기간}}$$

<표 1> 농장의 판매가격

분류 농장	PSY지수	연간 총 이유수	연간 총 출하수	판매 대금
A	18.4	1,840	1,748	262,200,000
B	20.7	2,070	1,966	294,900,000
C	23.0	2,300	2,185	327,750,000

회전율은 최고 2.6회전까지도 가능하나 사실상 쉬운 문제일 수는 없다.

하지만 가능성을 갖고 해볼 가치가 충분하다. 임신기간(114일)은 인위적 조절이 어려우므로 수유기간 단축, 재귀일 단축에 유념해야 한다. 당연히 비생산일수를 줄여 분만을 향상을 꾀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1) 수유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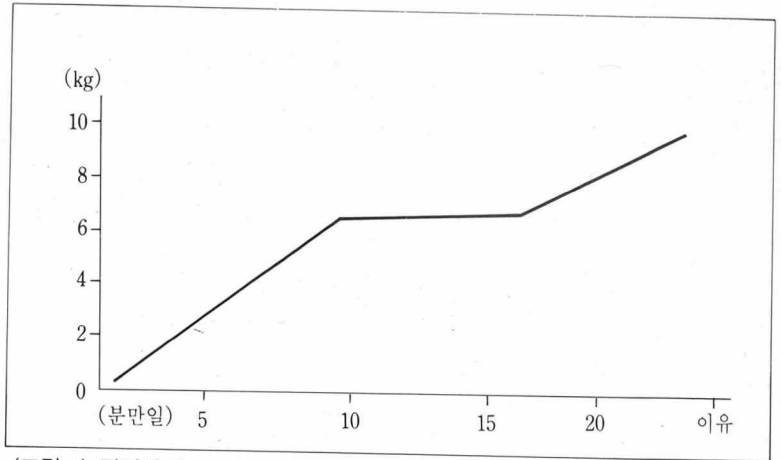
현재 미국의 경우 SEW(격리식 조기이유) 기법으로 2주령 이유를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당연히 MEW(투약식 격리조기이유) 관리방식과 능력좋은 돈군의 형성, 고능력 수퇘지 활용, 포유기 자돈 관리기법의 우수성 아래 가능한 것이다. SEW 기법 사용시 모돈에 의한 자돈의 질병 감염기회를 수직 차단함과 더불어 모돈의 차기 산자수에도 지대한 영향이 있다.

이유 일령별 차기 산자수가 우수한 정도는 첫째 16일령, 둘째 32일령, 셋째 23일령 순이다. 32일령 이유의 경우 회전율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지양하는 편이 좋다.

2) 재귀일

통상적으로 5~7일경에 이후 교배가 이루어지는데 정상적인 발정을 유도하고 재귀일을 단축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수유기간 중 적절한 Body



〈그림 1〉 적절한 Body Condition 유지를 위한 포유모돈 사료급이법

Condition을 유지시켜야 하고 이유후 강정기 사양, 쇼크를 위한 돈방이동 등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림 1〉 참조)

또한 발정 지연돈 관리가 중요한데 이는 다음과 같은 발정 유도 행위가 요구된다.

- 고단백, 탄수화물 급여
- 정기적인 웅돈과의 접촉시도
- 발정 지연시 수용장소 이동, 청초급여
- 일주일까지 무반응 일때 호르몬제 주사 사료감량, 하절기 수욕
- 차후 일주일까지 무반응 일때 재차 수용장소 이동, 드라이브
- 상기조치시 무반응 일때 도태

3) 분만을

분만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단순재발

- 유산
- 불임
- 지체사고 등에 의한 도태
- 폐사

결국 이러한 악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양관리가 요구된다.

4) 사양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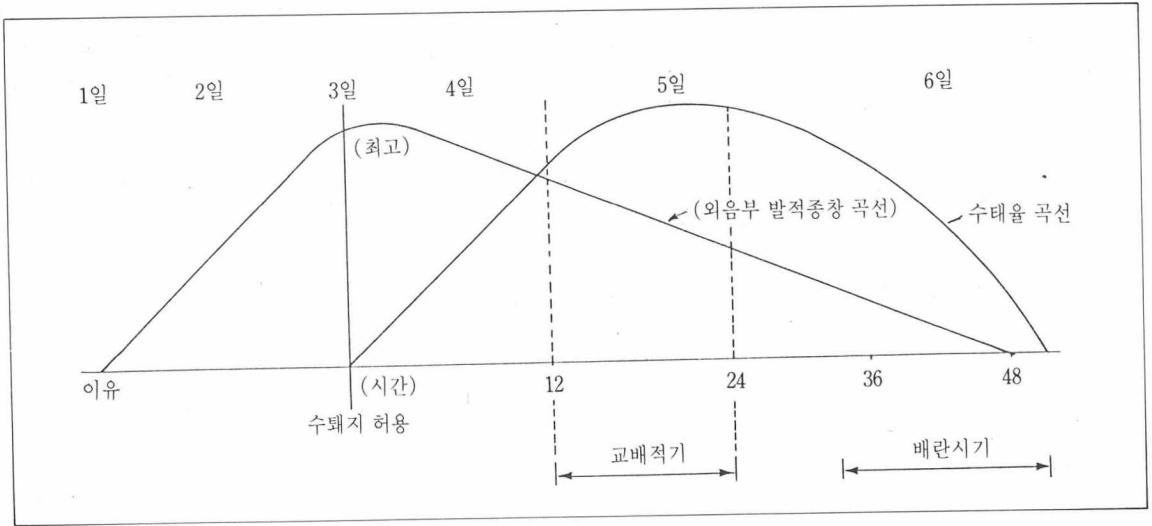
- 교배방법
- 수퇘지 자극에 의한 적기 체크
- 습관적 불수태돈 과감한 도태

5) 웅돈관리

- 적정 사용횟수(월 4~5회)
- 정액성상(정기적인 정액 검사)
- 계절(고온스트레스를 방지하기 위한 하절기 관리)
- 기온

6) 모돈의 정예화

- 노산돈 도태



〈그림 2〉 교배적기

- 악성 질병 감염돈 도태
- 습관성 재발돈 도태
- 갱신을 40% 이상 유지

7) 질병예방

- 비노생식기 질환(방광염, 질염, 자궁내막염)
- 렙스토피라증
- 파보, 뇌염
- PRRS 뇌심근염

8) 환경 및 시설개선

- 종부후 임신초기돈의 스트레스 최소화 노력
- 시료통 부패사료 제거
- 돈방 바닥 미끄러짐 방지
- 임신말기돈 격한 운동 및 투쟁방지

나. 복당 이유두수를 높이기 위한 방안

1) 종 산자수

- ① 교배적기 체크

〈표 2〉 웅돈 접근방식의 효과

방 법	발정확인율(%)	교배성공률(%)
매일 웅돈 1회씩 접촉	90.3	87.1
암퇘지끼리 분리사육	51.6	51.6
웅돈과 혼합사육	48.5	46.9
웅돈과 마주보고 사육(최소 1m 거리유지)	81.2	81.2

일반적으로 교배적기는 모돈이 수태지를 허용 개시한 시간(Standing Heat Time)으로 부터 12시간 전후이다.

외음부 종창변화에 의한 징후 및 적기는 〈그림 2〉와 같다.

② 발정체크 방법
〈표 2〉 참조.

③ 이유시 강정기 사양

포유중 상실한 체력을 급속히 회복하도록 돕고 아울러 배란수를 극대화 하기 위해 이유 후 절식이 끝나면 고단백, 광물질, 탄수화물 등 각종 영양을 보 조하고 평상시 보다 20% 이상 사료를 증량급이 한다.

2) 생산시 사고수 최소화 방편

- ① 순산

- 과비된 모돈은 난산의 원인이 된다.(과비를 막고 말기돈 운동을 시킨다)
- 낙산모돈은 이유후 도태조치
- 교배직후 스트레스를 받은 모돈은 경직화 현상을 인해서 착상배열이 난잡하다.(임신 초기돈 안정화 관리)

② 분만유도제 과다투여 금물

③ 질병예방

- 파보, 뇌염
- 비노생식기 질환
- 뇌심근염 바이러스
- PRRS 등

④ 무간호 분만에 의한 사고

국내 여건상 시설이 무간호 분만을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주간 관련계획에 의거하여 지정된 분만일에 유도분만을 실시하는 것도 좋다.

3) 포유중 사고 최소화

① 압사 방지책

- 분만틀 구조상 문제점을 과감히 개선
- 돼지는 습관적 동물이다. 모든 기립시 보온상자로 들어가거나 피해야 한다는 인식을 인위적으로 심어 주고 재차 훈련을 시킨다.

② 자돈의 질병예방

- 면역 글로블린 형성 : 충분한 초유급이
- 설사예방

- 치료에 앞선 예방 차원화
 - 매일 소독
 - 분만실 유출입 통제
 - 모돈 분변 및 후산물 제거
 - 탈수방지를 위한 포도당, 아미노산의 일상적 투여
- ③ 위축돈 예방
- ④ 입불이기 사료급이시 세심한 관리

3. 결론

올 한해 돈육가는 상당히 낙관적이기는 하나 가격 안정화 차원에서 최소시장 접근방식(MMA)에 의한 수입물량(정육 17,500t)이 얼마나 타격을 줄 것인지 걱정되지 않을 수 없고, 작

년의 흑서기로 인해 손실된 부분의 대체를 더욱 안타깝게 하는데 농심은 자꾸 외면되어야 하는지.....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당연한 듯 좌시할 수는 없겠지만 어쩌면 이러한 악 상황들이 계속되는 현실일 수 밖에 없다.

이제 살길은 오로지 생산성 향상 밖에 없다. 정확한 농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과감히 대처해 가는 신세대 운영이 요구된다.

PSY 24두 실현은 더 이상 과제가 되어선 안된다.

당연한 흐름으로 여겨져야 한다. **美跡**